

전주시 100대 생활업종 '동조 하락 전환' 전주,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전주시정연구원, 사업자 현황 자료 분석... 자영업 안전망 구축 등 정책 방향 제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전주시 100대 생활업종 102개월(2017년 9월~2026년 2월)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14대 주목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안한 '100대 이슈브리프 제24호'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국제성이 매월 공표하는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100개 업종 △102개월 △3지역(전주시·완산구·덕진구) 패널을 구축해 4단계 통계 프레임워크와 4차원 11지표 복합지수를 적용한 정밀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가장 주목할 발견은 전주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가 8.4년 만에 처음으로 완산구와 덕진구가 동시에 정점 도달 후 하락 전환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완산구는 2025년 10월 2만1667개로 사상 최고점에 도달한 후 2026년 2월 2만1481개로 0.86% 감소했

으며, 덕진구는 2025년 11월 1만8220개로 정점에 도달한 후 1만8118개로 0.56%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 기에도 양 구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동조 하락은 기존과 다른 성격의 구조적 신호로 분석됐다.

또한 8대 분류군으로 세분화해 통계를 검증한 결과 전주시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변화가 통계적으로 입증됐다.

특히 외식숙박업이 직면한 충격이 코로나가 아닌 고물가·고금리·내수 부진의 복합 충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반면 비대면 디지털 분류군은 유일하게 최근 충격에 무감으로 나타나 거시 충격에 영향받지 않는 신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4대 차원·11개 세부지표의 복합지수를 통해 전주시 14대 주목 생활업종을 선정했다. 정책

정책성에 따른 분류로는 △'고도 성장' 4개(통신판매업·편선·게스트하우스·교습소·공부방·피부관리업) △'구조적 위기' 2개(간이주점·호프주점) △'위기 진입' 2개(편의점·옷가게) △'회복·전환' 5개 △'안정 성장' 1개로 도출했으며, 위기 또는 회복 상태가 64%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통신판매업이 5976개로 한식을 직접(4871개)을 추월해단일 업종 1위로 부상한 점은 전주시 자영업 지형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업종군 즉각 개입을 통한 자영업 안전망 구축 △신경제 업종군 적극 육성'을 통한 자영업 새 지형 선점 △완산·덕진 분화 양상에 따른 구별 차별화 정책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연구원은 9개 위기·회복 업종에 대해 한식음식점 디지털전환 패키지 마련과 주류업 구조전환·전직 지

원, 편의점 야간경제 안전망 인정, 완산구 의료상권 재구조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자영업 새 지형 선점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공동 스튜디오·공동물류센터 조성, 한옥마을 편선·게스트하우스 품질인증제·야시장 활성화, 한류 열풍과 연계한 뷰티·웰빙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연구원은 완산구 구도심 골목상권 통합 재구조화와 덕진구 신도시 자영업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전주시 100대 생활업종이 8년 만의 첫 동조 하락 전환에 진입한 만큼, 위기 진입 9개 업종에 대한 신속 정책 대응과 신경제 4개 업종에 대한 적극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자영업 안전망과 새로운 일자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전주시 자영업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으로 발전시켜 매일 시정에 위기 신호를 자동 모니터링하는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생활 속 AI 활용 지원

갈수록 AI와 디지털 기술이 행정·금융·의료·교통·문화생활 등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디지털배움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시는 시민들의 AI·디지털 활용 격차를 줄이고, 실생활 중심의 AI·디지털 기초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다가서당 거점교육 △양 구청 AI·디지털 교육 △찾아가는 AI 교육(시민 대상) △찾아가는 AI·디지털 교육(기관·단체) 등을 병행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전주시 거점센터인 '다가서당'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상시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



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5월에만 총 14개 과정이 운영된다. 다가서당 외에도 양 구청 정보교육장에서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완산구청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덕진구청은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AI 교육도 추진한다. 8명 이상의 소그룹이면 오는 10월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중증도 분류 기반 병원 이송체계 강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기반 병원 이송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중증도 결과를 토대로 환자 상태에 적합한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이송 전 의뢰기관에 환자 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응급실의 초기 대응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



원 재이송을 줄이고, 중증환자의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에코누리어린이집,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전액 기부

에코누리어린이집(원장 안강순)은 18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성)에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78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에코누리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한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어린이집 구성원들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고 그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자원 순환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했다.

특히 에코누리어린이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시복지재단의 '백만천사 캠페인'에 동참하며 2년 연속 따뜻한 온정을 이어갔다. /권희성 기자

전주를 빛낸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7명 선정

평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의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전주를 빛낸 시민들이 2026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정혜, 신호균, 왕기석, 정인준, 송병용, 최형원, 서양열

전주시는 각계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민대상 본심사위원회를 통해 2026년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7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광의 2026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효행대상 문정혜 씨(68세, 여) △교화예술대상 신호균 씨(70세, 남) △문화예술대상 왕기석 씨(62세, 남) △산업·기술대상 정인준 씨(52세, 남) △사회봉사대상 송병용 씨(64세, 남) △체육대상 최형원 씨(63세, 남) △복지대상 서양열 씨(53세, 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효행대상 수상자인 문정혜 씨는 103세의 노모를 정성껏 돌보는 와중에도 아파트 공동체 및 경로당 등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효의 모범을 보여

왔다.

교화예술대상 수상자인 신호균 씨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창설 및 운영을 주도하고 풍납학사 건립에 앞장섰으며, 전주교육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예술대상 수상자인 왕기석 씨는 40여 년간 200여 편의 공연으로 판소리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주마당장극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산업·기술대상 분야에서는 전북 지역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공간정보 분야 인재 양성에 앞장서온 정인준(취고원공간정보 대표 이사)가 선정됐다.

사회봉사대상에서는 전주시새마을 회장을 역임하며 '좋은 이웃 만들기 운동' 및 '지구촌 살리기 환경운동' 등을 전개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온 송병용 씨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체육대상을 수상하게 된 최형원 씨는 전주시체육회 설립에 기여하고, 대규모 체육행사가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전주시 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끝으로 복지대상 수상자인 서양열 씨는 전주시 복지현장에서의 장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주 복지정책 발전에 앞장서 왔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크고,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전주시민에게 귀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메달이 수여될 예정으로, 전주에서 관리하는 공인·체육시설·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9일 로 예정된 '전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민대상은 우리 지역 여러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며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